

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본

**‘2030’ 취업기회 박탈하는
비정규직의 정규직화**

사태의 발단

-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

- * 비정규직 1902명의 정규직화

- 인천공항경비(주)로 6개월 임시 편제 후, 공사의 정규직 '청원 경찰'로 전환

-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

- *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

- *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

- 약 30만 개는 정규직 전환으로 나머지 50만개는 신규 채용으로

취업 준비생들의 분노

- **신의 직장 공기업, 인천국제공항공사**

- * **힘겨운 입사**

- 35명 채용에 5469명이 지원, 경쟁률 156대 1(2019년)

- * **힘겨운 공기업 취업**

- 대학진학, 취업준비 등(토익·자격증 등)

- **대통령 공약에 의한 시혜**

- * **기회의 불공정(불공정한 게임의 규칙)**

- '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역차별'
 - '노력하는 자들이 차별 받는 "거지같은 상황"

- * **결과의 역차별**

- 공공부문 취업 기회의 축소

'인국공'의 단면이 보여준 문제들(I)

• 잘못된 구조

- 70%의 대학진학률
- 대학졸업자의 공급과잉
- 좋은 일자리의 부족
- 인력수급의 '미스매치(mismatch)'
- 노동시장의 이중구조
- 노동시장의 경직성
- 공공부문의 자율성
- 부실하게 개발된 국가 주요 정책

'인국공'의 단면이 보여준 문제들(II)

• 비정규직 문제

* 좋지 않은 일자리 '비정규직'

- 대기업·유노조·정규직 부문의 임금과 근속연수는 평균 13.7년과 424만원으로, 중소기업·무노조·비정규직 2.3년과 152만원과 높은 격차
→ 문제의 해결, 비정규직을 '**좋은 일자리**'로

* 노동시장의 이중구조

-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의 어려움
- 정규직 이기주의

잘못된 구조의 트랙 위에 놓인 대졸 취업준비생

- 대학졸업자의 공급 과잉

- * 70%의 대학진학률
- * 좋은 일자리의 부족

-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화

- * 노동시장 경직화
 - "정규직 과잉보호"
(호황에도 불황 시 해고의 어려움을 이유로 채용 회피)
ex) 쉬뢰더의 하르츠 개혁
- * 노동시장의 이중구조
 -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

잘못된 구조의 시혜적 해결

- **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?**

- *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?

-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에서
 -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경영방만, 공공부문 재정적자
 - 공공부문 채용 잠재력 악화

- **공공부문 경영평가?**

- * 경영평가로 공공부문 좌지우지

- 100점 만점에 32점이 일자리 확대 평가

⇒ 재정건전성·노동생산성·채용잠재력 악화

⇒ 현 취업준비생과 다음 취업준비생의 기회 축소

잘못된 구조의 제도적 해결

- **대학진학률 축소**

- * 대학진학률 70%에 의한 대학졸업자의 공급과잉
→ 대학 진학 이외의 사회적 성공의 통로 구축

- **좋은 일자리 확대**

- * 민간부문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확대
- *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축소
- * 노동시장 유연화로 정규직 고용 확대

잘못된 구조의 확대

• 반기업·친노조 정책

- *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과 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등
- * 정규직 고용보호 강화(노동시장의 경직화)
- * 경쟁국 대비 높은 각종 규제들과 법인세 등
- * 각종 반기업법 추진
 - 공정거래법 개정안, 상법 개정안, 노동조합법 개정안,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

• 민간부문 위축

- * 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
- * 국내직접투자 감소와 해외직접투자 확대
- *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의 축소

부실하게 개발된 공약·국정과제

부실하고 이념편향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공약

- * 대선 공약단, 짧은 기간과 소수
- * 이념편향적 공약
- *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내의 성과 창출

• 인기영합주의(당선용)

- *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
 -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야기

⇒ 취업준비생의 기회 박탈, 공공부문 경영악화, 미래세대의 취업난 가중, 국가 부채 확대 등

결론: 잘못된 구조의 제도적 해결

- 대학진학 이외의 사회적 성공 통로 개척

- * 마이스터 제도의 도입 등

-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, 대졸 실업자 축소, 좋은 일자리의 다양화

- 노동시장 유연화

- *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

- 정규직 고용 확대

-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타파

- *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

-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

- 민간부문 활성화

- * 민간부문의 친기업·친노동 정책 도입

- 좋은 일자리 확대